

# 농특산물 수도권 판로 확대 '총력'

### 군산시, 수도권 각종 직거래장터 홍보·판촉 행사 참가 지원 등... 수도권 시장 집중 공략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인지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동행상회 입점, 추석 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 지원, 군산 농특산물 직거래 홍보 판촉 행사 개최 등 서울 수도권 농산물 소비시장 공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군산시는 지역 농특산물의 대도시 상설 판매와 홍보 기회 확대를 위해 서울동행상회에 지역 가공업체의 입점을 지원하고, 우수 농특산물 팝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동행상회'는 지역의 중·소 농을 돕고 서울 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국동에 설립한 농특산물 오프라인 상설매장이다.

특히 경복궁, 인사동과 인접하여 국내외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많은 판매수주도 적용, 지자체 기획전 운영, 다채로운 판매 이벤트가 진행되어 각 지자체의 상품 입점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 서울동행상회 입점 업체 2차 모집에는 전국 74개 지자체, 124개 업체, 388개 상품이 신청 접수됐다. 이중 판매 적정성·시장성 등 까다로운 1·2차 평가로 신청업체 62%가 탈락한 가운데 군산시는 신청한 6개 업체 모두가 입점하는 쾌거를 낳았다.

이번에 입점한 군산시 업체는 △농



군산시는 지역 농특산물의 대도시 상설 판매와 홍보 기회 확대를 위해 서울동행상회에 지역 가공업체의 입점을 지원하고, 우수 농특산물 팝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의 식품공장 이성일 농가 '귀리미숫가루' △(유)산돌팜 '무자코코야양 배추사과' △메인콤브루인 '깨보선창 라거 수제맥주' 등으로 이번에 선정된 6개 업체를 포함하여 총 13개 업체, 34개 상품이 입점하게 됐다.

아울러 서울동행상회 외부공간에서 군산 농특산물 팝업 기획전을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울 시민과 인근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군산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했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광장, 은평구, 동작구, 강남구 등 서울 지역에서 개최되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코엑스 명품 선물전 등 농식품 박람회에 지역 농가 및 가공업체의 참

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2024 서울아외도서관: 광화문 책마당'의 특별 플랫폼 프로그램으로 11월 8~10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동행마켓-로컬푸드 '군산'을 운영하여 지역 농가 및 가공업체 생산품의 판로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김미정 먹거리정책과장은 "서울동행상회 입점에 군산 업체와 농특산물이 지자체 중 최다 선정된 것은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지역 농특산물의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먹거리 홍보 마케팅으로 수도권 시장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장, 수해현장 찾아 시민과 현장 소통

###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나포·성산면 현장 방문

군산시는 20일 나포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장이 찾아가는 열린 특&특'을 개최하고,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현장을 직접 찾아가 시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시장이 찾아가는 특&특'은 2023년 2월부터 현장에서 시민들의 더 많은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전방위적인 시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1회 개최되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과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왔다.

특히 이번 달에는 지난 7월 10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나포면과 성산면 주민들의 민심을 듣기 위해 개최장소를 나포면으로 선정하였다.

강 시장은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지원내용,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규모 등에 대

해 설명했다.

또한 나포면 망해산 등 산사태 피해 지역 대책 마련 나포면 망해산로(지방도 744호) 복구 지원 나포면 입점마을(부곡리 747-5 일원) 수로관 확장 및 응벽 설치 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비 지원 요청 △성산면 농배수로 신설, 도로 포장·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적극 지원 요청 △집중호우 대비 사방댐 또는 배수로 신설 등 재해예방 조치 병행 건의 등 지역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강 시장은 수해 피해현장인 지방도 744호인 망해산로와 나포면 입점마을(부곡리 747-5 일원)을 직접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의 최우선은

'안전'임을 강조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수시 점검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현장의 특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특&특에 참석한 주민은 "시장 업무로 바쁘신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으로 찾아와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며 "지난 7월 많은 비로, 눈이 잠기고 산이 무너지는 것을 보니, 역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주셔서 피해복구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함께 해주셔서 안심된다"고 말했다.

강임준 시장은 "항상 소통을 핵심 가치로 여기며, 시민 의견이 시장에 신속히 반영되는 시민 중심의 열린 시장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장, Z세대 직원과 소통 강화

### 조직문화 개선·청렴행정 구현 위해 '세대 공감 청렴간담회' 개최

정현을 익산시장이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 제트(Z)세대 직원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익산시는 20일 정현을 시장과 제트(Z)세대 공무원 15명이 지역 카페에서 '세대 공감 청렴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렴 으뜸도시 익산시 구현 △조직문화 개선 방안 △공직생활 중 이루고 싶은 꿈을 주제로 진행했다.

젊은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기존 조직문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상호 존중의 문화 조성과 혁신적인 소통 방식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익산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조직문화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이번 간담회가 세대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세대의 의견이 시장에 반영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대 간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자주 마련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현을 시장은 "젊은 직원들이 청렴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고방식과 도전정신을 더해 익산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공무원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에 힘쓰고 젊은 공무원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명

### 최영환 이사 "차질 없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에 만전"

20일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환(63) 전 군산시 안전건설 국장이 취임했다.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는 2022년 9월 전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공석상태였으며,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이사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끝에 최 대표이사가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군산시에 추천됐으며, 8월 5일 군산시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19일 최종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최 대표이사는 "현재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장기공석으로 흐트러진 내부 조직의 안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라며 "조직 안정화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육상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환원과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대, 2023학년도 후기학위수여식 개최

국립군산대학교는 20일 오전 교내 음악관 콘서트홀에서 세계와 함께하는 졸업 축하와 연대의 시간을 주제로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강태성 국립군산대학교 총동문회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등과 교내 주요 보직자,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이 참석하였다.

최연성 총장 직무대리는 졸업 식사를 통해 "졸업은 강의실에서 배웠던 많은 것들을 현실 세계에 실제로 적용하고 펼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라며 "궁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여러분을 더욱 큰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올해 후기 학위수여자는 학사 176명, 석사 90명(일반대 42명, 산업대 24명, 경영행정대 3명, 교육대 21명), 박사 74명(박사 66명, 석박사통합 8명) 총 340명으로 지금까지 8만 명에 이르는 인재가 국립군산대학교를 통해 졸업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집수리 학교

#### 무료 교육생 모집

익산시가 익산지역자활센터(센터장 임탁균)와 함께 시민 스스로 내 집을 고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

'집수리 학교'는 익산지역자활센터에서 주관하며, 2회에 걸쳐 남중동에 위치한 (유)사각사각의 교육장에서 이뤄진다. 1회는 9월 24~27일 진행되고 2회는 10월 7~11일에 운영된다.

교육은 전액 무료이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진과 함께 △기본 공구 사용법 △목공 건축 △생활 전기 △포인트 페인팅 △목실 설비 교체 등을 진행한다.

참여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익산지역자활센터 팩스(063-841-1061) 또는 담당자 이메일(ikjahwal@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각 회당 20명을 모집 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지역자활센터(063-841-1040)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대규모 행사 앞두고

####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익산시가 대규모 방문객 참여가 예상되는 행사를 앞두고 안전 확보에 나섰다.

시는 'CBS 창사 70주년 한밤의 프레이즈'와 '2024년 익산미륵사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등 대규모 행사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20일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익산시장을 비롯해 익산경찰서, 익산소방서 등 관련 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CBS 창사 70주년 한밤의 프레이즈'의 재해대책계획을 심의했다. 이어 다음달 6일부터 진행되는 '2024 익산미륵사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민품현장의 인파사고 예방대책, 안전관리 요원 배치계획, 교통 대책 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면밀하게 살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